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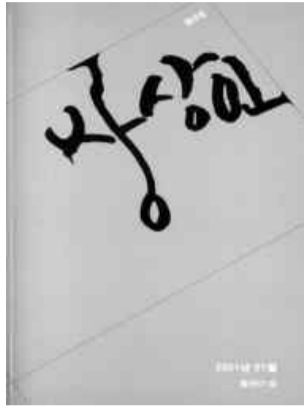
“새로운 상상으로 무장한 작품 만날 수 있는 장”

전남대 ‘광주·전남 특하다’ 한책 후보 5권 선정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시인 주축 시 전문지 ‘상상인’ 창간 진혜진 시인 발행...24일 서울서 상상인 신춘문에 시상식

“저 너머는 항상 우리들에게 존재했을까, 자신 밖으로 던져진 우리는 상상인이다. 그럼에도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불가능의 냄새는 나지 않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질문은 역설과 독설로 가득 찼다고 하지만 상상인의 대답은 안과 밖이 없다.”(‘상상인’ 창간호 상상인어 불에서)

상으로 무장한 이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場)을 지향한다”며 “틀에 갇힌 물음에서 떨어져나온 ‘상상인’을 이제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권 시인의 지향점도 그와 다르지 않다. ‘낮선 관념을 즐겨 창출해내는 문화적 창조자’를 꿈꾼다.



문학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문예지, 문학 전문지를 발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문학은 모든 예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르다.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창작품은 다시 글(문학)로 환원되기도 한다.

문학하기는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글을 쓰고, 시집을 발간하고, 소설을 펴내는 이들은 날로 늘어난다. 문학을 지망하는 이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서 칠순·팔순이 넘은 어르신들부터 이십대, 삼십대의 젊은층, 은퇴를 한 실버세대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지위여하를 불문한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시인들이 주축이 돼 서울에서 시 전문지를 창간해 화제다. 2016년 신춘문에 당선자 진혜진 시인, 2019년 당선자 강대선 시인 외에도 남도를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펼쳐온 시인들이 다수 참여해 시 전문지 ‘상상인’을 창간했다.

발행인 겸 대표의 진혜진 시인, 주간은 시인인 광주교대 연합권 교수가 맡았다. 편집인에 최지하 시인, 편집위원으로 강대선 시인을 비롯해 여수 출신 마경덕 시인, 순천문학관에 근무하는 이선애 시인 등이 참여했다.

진 대표는 “일상화된 사유를 거부하고 새로운 상

상 “상상하는 자아, 상상하는 주체는 불가시적인 것을 애써 투시하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선경한다. 상상인의 시공은 10차원의 우주이며 주머니처럼 매달려 있는 다른 작은 우주들을 발견하고 이를 형성적인 논리로 재구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상인은 고정된 내용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습관이나 태도로서의 형식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시가 상상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은 사회적 공감과 정동적 유대론적인 상상체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대선 시인도 “상상이라는 말처럼 누구든지 상상 하나로 시를 쓰고 문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전문지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시간의 상상과



진혜진 시인



연합권 시인



강대선 시인

플랫폼 ‘상상인’의 창간과 새로운 문예지의 역할’을 주제로 전해수 평론가(상명대 연구 교수)의 글이 수록됐다. 또한 2021년 상상인신춘문에 당선자 나중훈의 ‘응, 그림편이다’와 4편, 박희연 ‘나는 아직 허공에 닿지 않았다’와 4편과 아울러 이병률·권혁웅 시인의 심사평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제1회 상상인 시집창작지원금 선정작 심은섭의 ‘늦은 바람의 문법’의 1편, 이인주의 ‘물방울 집’의 1편, 김송포 ‘생각(生角)’을 만지다’의 1편도 실려 있다.

이밖에 강인한·곽재구·정운전 등 남도 출신 역량 있는 시인들의 시도 다수 접할 수 있다.

당초 시 전문지 창간에 앞서 진 대표는 출판사 ‘상상인’을 2019년에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2년 후 시전문지 ‘상상인’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출판사 ‘상상인’이 펴낸 상상인 시선은 모두 19권이다. ‘앤솔로지 상상’부터 시작해 김유석·최지하·양수덕·이선애·마경덕·전다형·권혁재·강대선·김남수·정영주·신지혜 시인 등의 작품집이 발간됐고 조만간 두 시인의 시집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상상인창작기회 시인선에는 이인주·김송포·전장석 시인의 작품집이 나왔다.

상상인에서 발간된 시집의 호평과 아울러 의미 있는 결실도 적지 않다. 김유석 시인의 ‘붉음이 제 몸을 휘다’가 2020년 세종도서예, 정영주 시인의 ‘통로는 내일모레야’가 2020년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아울러 2020년 문학나눔에는 전다형 ‘사과상자의 이빨’, 권혁재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김남수 ‘동근 것을 보면 아프다’가 각각 선정됐다.

일반 시인들과 문정들, 시인을 지망하는 이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상인신춘문에 공모 결과 모두 330여 명이 응모했으며 제1회 상상인창작지원금에는 140여 명이 원고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상상인은 상상인신춘문예와 창작지원금 시상식을 오는 2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강호(안국역 4번 출구)에서 개최한다. 문의 010-7371-187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가 주최하는 ‘2021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한책 후보 도서 5권이 선정됐다.

전남대 도서관은 최근 한책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올해 전남대를 비롯해 시도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후보 도서 5권을 선정했다.

후보 도서는 심사결과 고득점 순, 저자 사업 참여 의사 표명에 따라 5권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정재찬), ‘관계에도 연인이 필요합니다’(박상미),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우종영), ‘서른세 번의 만남, 백석과 동주’(김응교), ‘꿈꾸는 사과’(모지현) 등이다.

이밖에 ‘시선으로부터’(정세광), ‘김미경의 리부트’(김미경), ‘죽은 자의 집 청소’(김완), ‘달려 구드 꿈 백화점’(이미혜), ‘페인트’(이희영)도 한책 선정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은 후보 도서 5권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최종 한 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인문학강좌 22일 개강 첫 강좌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의 상반기 인문학강좌 ‘행복 레시피’가 22일 시작된다.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행복 레시피’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개 강좌 12회 진행된다.

매주 목·금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4층)에서 열린다.

첫 강좌는 22-23일까지 ‘행복 레시피’ 저자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행복 레시피’를 주제로 강의한다. 디지털 문명 및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몰입(?) , 느긋함(!), 침묵(!)이라는 인문학적 기호를 통해 행복을 이야기한다.

이번 강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며 수강인원은 10명 내외로 제한한다. 희망자는 문화예술작은도서관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한편, 이후 강좌는 ‘희망 골든타임’(희망 전남대 응급학과 교수), ‘고인물 이야기’(박학선 사진작가), ‘추상미술 속 작가의 삶’(박은수 작가), ‘판소리 다섯 바탕’(장영한 광주시립창극단) 등, ‘판타블로 기법으로 그려본 양림동 평강 마을’(이민 작가) 등이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김태형 광주 무대 선다



29일 금호아트홀 리사이틀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노 주자 김태형(사진)이 광주에 온다.

피아니스트 김태형 리사이틀이 ‘희(喜)’를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1부는 낭만주의자 슈만의 아름다운 피아노 곡들로 꾸렸다. 나비의 섬세한 날갯짓을 떠올리게 만드는 맑은 선율이 인상적인 ‘나비’를 시작으로 ‘4개의 음표에 의한 작은 정경(情景)’이라는 부제가 달린 21개의 짧은 곡 모음 ‘사육제’를 들려준다.

이어 2부에서 연주할 프랑스 작곡가 메시앙의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은 변화무쌍한 리듬과 전란한 화성, 소용돌이치는 음의 진행 등 메시앙만의 음악적 언어가 고스란히 담긴 곡이다.

공연의 피날레는 20세기 대표적 작곡가로 꼽히는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에 의한 3개의 악장’이 장식한다.

김태형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엘리스 비르살라제 사사로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치고 이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비르살라제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마마쓰 콩쿠르와 롱-티보 콩쿠르 입상, 프랑스 그랑프리 아니마토 콩쿠르 우승, 영국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콩쿠르 우승과 청중상을 받았으며 영국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2018년부터는 경희대학교 음악대 교수로 임용돼 왕성한 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중이다. 전석 3만원. 문의 031-707-820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 프로그램 명화여행·쇼미더 탭 광산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광산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_나를 찾아 떠나는 명화여행’과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_쇼미더 탭’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감상형과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자유예술가이자 샌드아티스트 주홍 작가의 강의로 진행되는 감상형 프로그램 ‘어른들의 예술감상 놀이터_나를 찾아 떠나는 명화여행’은 기수별로 6회씩 운영되며, 오는 2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체험형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_쇼미더 탭’은 탭댄스를 통한 리듬감, 운동감, 자신감 향상을 돕는 시간으로 기수별로 15회씩 운영되며 30일까지 모집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taehihi@korea.co.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960-898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